

강호(江湖)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하다

➔ 자연에 봄이 오니 할 일이 많구나 (하다)

나는 그물 낚고 아희는 밧줄 가니

➔ 나는 그물을 보수하고 시중드는 아이는 밧줄 가니

뒷 댕히 움이 튼 약초를 언저 캐려 하느니

➔ 뒷 산의 피어나는 약초를 언저 캐려 하나뇨

<1수> 봄이 되어 분주로운 자연 속의 삶에 대한 즐거움

삿갓에 도롱이 낚고 세우중(細雨中)에 호미 메고

➔ 삿갓을 쓰고 비옷을 입고 가는비가 내리는데 호미를 메고

산전(山田)을 훑매다가 녹음(綠陰)에 누어시니

➔ 산의 밭을 매다가 푸르른 나무 사이에 누으니 (녹음 -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)

목동이 우양(牛羊)을 모라다가 잠든 나를 깨우는구나

➔ 목동이 소와 양을 몰아와서 잠든 나를 깨우는구나.

<2수> 여름이 되어 일을 하다 여유를 즐기는 자연 속의 삶에 대한 모습

대초볼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뿔드르며

➔ 대추가 붉게 익은 골짜기에 밤은 어찌 떨어지며 (먹을 것이 풍성한 가을의 모습)

벼 벤 그루터기에 게는 어이 느리논고

➔ 벼를 벤 언덕에 게는 어찌 내려가는가?

술 닉자 체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

➔ 술이 익자(모두 만들어지자) 체장수가 지나가니 (체를 사서 술을 체로 걸러) 아니먹고 어찌하겠는가

<3수> 가을의 풍요로운 자연의 모습

뉘혀는 새가 굶고 들혀는 갈 이 없다

➔ 산에는 새가 그치고 들에는 가는 이가 없구나

외로운 비에 삿갓 쓴 저 늙은이

➔ 외로운 배에 삿갓 쓴 저 늙은이

낙덕에 재미가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

➔ 낚시하는 재미에 빠져있구나 눈이 깊은 줄은 아는가

<4수> 적막한 자연의 겨울 모습

- 황희, 「사시가(四時歌)」-

◆ 핵심정리

갈래 : 고시조, 연시조

성격 : 한정가, 자연친화

주제 : 4계절 동안 자연 속의 삶을 즐기는 모습

특징 : 1) 시간적 배경의 이동에 따른 구성

2) 설의법을 통한 강조